



2면

세계유산도시 익산, 국내 역사 관광 선도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음 11월 5일) 제3149호

대표전화 (063)288-9700

지자체·대학·기업 지역 경쟁력 키운다

지역혁신사업 전북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 농생명바이오 등 핵심 3대 분야 기업 참여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내년 공모 선정이 목표... 2028년까지 추진

전북도는 25일(금) 도청 중회의실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전라북도 지역협업위원회(이하 위원회)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교육감 전북대 총장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혁신 주체들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등 5개 자치단체와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재)자동차기술용융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주상공회의소, 전북테크노파크, (주)하림, 비나텍(주), 타타데우상용차(주) 등이 1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 관련 지

역혁신과제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당면목표는 내년 교육부 RIS사업 공모 선정이다. 2028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될 RIS사업은 총사업비 2,145억원에 이른다.

전북도는 RIS사업 선정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과 인재양성으로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겠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전북 경제의 발전을 위해 도와 교육청 대학, 지역혁신기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긴밀한 협조와 공동 대응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전북 지역협업위원회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와 대학, 교육청, 혁신기관 및 기업 등 17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회의를 하고 있다.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제조시설, 완주에 '문 활짝'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 완주 테크노밸리2산단서 공장 준공

(주)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이 지난 25일 전북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이차전지 분리막 필름 완주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관련사진 3면)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주)은 기존 분리막 코팅사업에 이어 분리막 생산까지 본격 시작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초석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4월 전라북도 및 완주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주)은 완주테크노밸리2산단 내 1만평 부지를 매입해 1단계로 A동 공장에 분리막 생산 라인 2개, 코팅라인 4개를 준공(700억원 투자)했고, 2023년 7월 B동도 착공(700억원 추가 투자) 예정이다. B동에는 생산라인 2개와 코팅라인 6

개를 추가해 2024년 말 공장을 준공하고 연간 2억4,000만㎡의 분리막을 생산할 예정이다. 생산된 제품은 LG 화학, 삼성SDI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또 향후 고객수요에 따라 완주군에 부지를 더 확보해 2,000여평 가량의 추가 투자도 고려 중이다. 이번 투자로 내년까지 1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며 B동 공장이 증설되면 추가로 100명을 고용해 총 2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후 미국시장에도 본격 진출해 1,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상기 대표이사는 "전북 완주공장은 에너지에버배터리솔루션(주)의 모든 직원들의 도전, 열정, 신념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는 꿈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조선 지방관 살림집, 국가 보물 되다

김제 소재 김제내야

김제시 소재 문화재인 '김제내야'가 지난 25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인정 고시 받았다.

김제내야의 보물 지정은 김제시가 문화재청에 내야의 가치를 표명한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 지정 예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지방관아를 구성하는 주요 건물 중 하나인 내야는 지방 수령의 가족이 살았던 살림집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 멸실되어 그 원형을 찾기 어려우나 문화재청은 현재까지도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김제내야의 건축학적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물로 지정, 고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성과 '톡톡'

2020~22년 69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 등 311건 지원

지난해까지 185억 매출액 · 128명 고용 창출 이뤄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에서 추진하는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도내 기업의 매출액 상승 및 고용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5일 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69개 기업에 시제

품 제작 등 311건을 지원했고 2021년 까지 매출액 185억원과 128명의 고용 창출을 이뤄냈다. 올해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매출액과 고용은 미반영된 상태다.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2020년 중소기업부 공모사업인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다. 도내 기능성 소재 부품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련 산업육성 및 경제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소재부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소재,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부터 시생산 및 완제품 개발, 인증까지 연계해 추진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되며, 올해까지 25억원이 투자됐다. 지원 내역은 시제품 제작 및 네트워크 지원 207건, 생산 기술력 강화 및 사업화 지원 40건, 소재부품 평가 및 제품인증 지원 64건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군산 소재 주사기 제조 P사는 주사기용 고무 시금형 개발 지원으로 47명의 고용이 창출됐다. 지난해 군산 C사는 자동차 부품용 자체에서 건축자재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다회성 고강도 거푸집 개발을 지원해 매출이 29억원 증가했다. /김경수 기자

'21 지속가능경영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 The Sustainability Yearbook 2021 화학부문 우수기업 | '21 DJSI Korea 지수 13년 연속 편입 | 한국지배구조원 ESG평가 A등급 획득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ESS 실증사업 실시

축! 전주매일 창간

글로벌 그린 케미칼 산업의 리더 OCI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를 열어갑니다